



캠프의 사각지대

-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여름 황창연
-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 떼제 기도 모임 손발이
- 효과적인 문서 정리 변혜영



이번 특집은 7·8월을 맞아 우리가 여름이면 야심차게 준비하는 캠프를 돌아볼 수 있게 기획해 보았다. 항상 캠프를 준비하거나 끝내면서 어떤 아쉬움이 남고, 올바로 캠프를 기획했는지 의심이 들었다면, 이번 특집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우선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여름’**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캠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고,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에서는 캠프 후 아이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기 위한 기도 방법을 제안했다. **‘효과적인 문서 정리’**에서는 캠프나 행사 때의 문서를 정리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여름

황 창 연

여름이다. 여름이면 한국 천주교회의 초·중·고등부 학생들 대부분이 ‘여름 캠프’라는 이름으로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난다. 그런데, 사목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여름 캠프’라는 단어부터 마음에 안 든다. ‘캠프’(Camp)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야영’ 또는 ‘야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름신앙학교’가 훨씬 의미 있는 단어다. 게다가 대부분 ‘여름 캠프’는 성당이나 도심지를 벗어나서 진행되기 때문에, 캠프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유희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앙학교 vs 캠프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성 필립보 생태마을’에는 참으로 많은 학생들이 여름 피정을 온다. 한 여름과 겨울에 약 4,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환경 피정에 참여한다. 지금이야 나름대로 생태마을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구를 위한 미사나 지구 온난화와 건강한 먹을거리 교육, 지구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준비하여 특성을 갖추었지만, 초창기에는 각 성당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소만 빌려 주는 형태였다.

그때 개신교에서도 우리 생태마을을 이용하곤 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래네 교회’ 초·중·고등부 학생들이 무려 3년 동안 다녀갔다. 우리 천주교회는 ‘여름 캠프’라는 이름으로 다녀갔는데, ‘모래네 교

회’의 성공 여부는 역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달렸다. 훌륭한 스승에게는 배울 점이 많게 마련이다. 준비된 선생님에게서 아이들은 신앙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만약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처럼 아무 지식 없이 ‘여름신앙학교’에 참여한다면, ‘여름신앙학교’ 전에도, 또 ‘여름신앙학교’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에게 연속적인 교육을 해 줄 수 없다.

회’는 ‘여름 산간 신앙학교’라는 분명한 이름으로 다녀갔다. 처음 2박 3일 동안 묵었던 ‘모래네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 보았다. “2박 3일 동안 재미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의 대답은 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예 신부님, 2박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네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은 다 함께 모여서 손잡고, 찬양드리고, 자유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획한 ‘산간 신앙학교’의 본 모습은 2박 3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하지 못한 기도와 성경 공부를 원도 한도 없이 실행 하고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천주교회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캠프 프로그램을 가만히 살펴보니, 재미 위주로 보여 가슴 아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다. 우선 신앙 공동체에서 피정을 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이들을 무슨 군대 훈련소에 입소시킨 기분이 들었다. 생태마을 입구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오리걸음’으로 숙소까지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아이들 중 반은 잔뜩 겁에 질린 눈망울이고, 반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 눈초리다. 더욱이 밤이 되어 하는 프로그램들은 점입가경이다. 우리 생태마을은 산 속에 위치해 있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무덤 있는 장소를 물어 보기에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니 밤에 추적 놀이 중 귀신 놀이를 하려고 무덤을 찾는단다. 천주교에서 1년에 한 번 야외에 나가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기껏 ‘귀신 놀이’라니! 웬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하는 몸 개그를 보는 기분이었다. 앞서 얘기한 ‘모래네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천주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름 캠프 때마다 귀신 놀이를 하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느님’ 하고 친한 게 아니라 ‘귀신’하고 친해져서 더 이상 성당에 안 나오고 세상으로만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웃지 못할 생각도 들었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천주교회는 예를 들어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이었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50명으로 확 줄어든다. 그 이유를 단순히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개신교 주일학교는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이었다면,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도 1,000명이었고, 심지어는 청년까지 1,000명에 이르는 교회도 많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는 거의 모든 성당이 똑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청년 미사 때면, 성가대와 전례를 담당할 청년들도 찾기 힘들고, 머리 빠진 떠꺼머리총각 같은 분위기가 된다.

내가 보기에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리는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성당에 나오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만 실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흥거리 위주로 교리가 진행된다거나, 특히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큰 행사인 ‘여름 캠프’마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반 캠프’로 끝나 버린다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야말로 성당에 나오는 의미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여름 캠프’의 중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 시간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성 필립보 생태마을에서 실시하는 여름 피정 끝에는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는다. 조별로 모닥불을 지펴놓고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끝을 맺는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좌신부를 할 때만 해도 캠프파이어를 할 때면, 우선 음악 선정부터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유행가를 틀어 놓고 몇몇 춤 잘 추는 아이들이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 불빛 앞에서 춤을 추고,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아이들은 불빛과 먼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제는 각 성당에서 실시하는 ‘여름신앙학교’의 모습이 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니, 예전처럼 수개월 전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꼼꼼히 준비하기 힘들어, 위탁 교육을 많이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여름에 실시하는 위탁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따라’ 오는 수준에 그치곤 한다. 한 마디로 이 소중한 시간(여름신앙학교)이 1회성 교육,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생태마을에 100명을 보낸다면, 차량비까지 합쳐 약 1천만 원의 예산이 든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1년 내내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든가, 아니면 좋은 장소에 놀러 다니는 편이 훨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연속성을 가진 여름신앙학교

97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실시하는 환경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토론토 교육청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Out Door’ 교육에도 함께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교육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과 같은 생태교육 기관인 ‘Out Door’ 선생님들이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학교에 가서 낮에는 학생들에게, 밤에는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야외 수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이 교육을 받은 후에야 학생들은 토론토 외곽에 있는 생태

교육 기관인 ‘Out Door’에 와서 나머지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야외 수업을 단순 행사가 아닌, 아이들의 삶에 자리 잡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보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 주일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름신앙학교’는 얼마나 교육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제 우리 ‘여름 캠프’는 바뀌어야 한다. 먼저 ‘여름 캠프’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야외로 나간다면 ‘여름 산간 신앙학교’라는 이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은 정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하려면 주제별 신앙학교를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권하고 싶은 신앙학교는 ‘도보 성지순례’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은 나라로 꼽힌다. 이 나라의 신앙의 근원지는 800킬로미터를 도보로 순례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¹⁾로 불리는 성지 순례 길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보 성지순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성지순례 때 묵주기도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성인들의 삶도 되돌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아니면 수도원 체험도 좋은 여름신앙학교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또, 테마별 여름신앙학교도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처럼 생태 체험을 한다든지, 꽃동네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산 속 체험을 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여름신앙학교’의 성공 여부는 역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달렸다. 훌륭한 스승에게는 배울 점이 많게 마련이다. 준비된 선생님에게서 아이들은 신앙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 만약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처럼 아무 지식 없이 ‘여름신앙학교’에 참여한다면, ‘여름신앙학교’ 전에도, 또 ‘여름신앙학교’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에게 연속적인 교육을 해 줄 수 없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좋은 신앙학교를 가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지도 신부와 수도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만나는 사람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보상 심리로, 여름에 캠프(놀게 해 주는) 생활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지 취미 공동체는 아니다. 따라서 ‘여름신앙학교’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좋은 강론도 듣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 주어야 한다. ‘여름신앙학교’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1)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시의 성 야고보 성당에 이르는 순례길이다. 정식 명칭은 ‘카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Camino de Santiago de Compostela)며, 보통 스페인어로 ‘길, 여정’을 뜻하는 ‘카미노’, 혹은 ‘더 카미노’ (The Camino)는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리킨다. 여기서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뜻한다.

황창연 베네딕토

수원교구 신부. 휴식의 공간이자 환경 교육 및 피정을 위한 공간인 강원도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및 피정을 기획하며 진행하고 있다.